

요한복음 주석서에 나타난 이상근의 교회 이해

김동수*

들어가는 말

이상근 목사(1920-1999)는 박윤선 목사와 함께 신구약성서 전권을 주석한 오직 두 명 밖에 없는 한국인 신학자였으며, 동시에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에서 평생 자신이 주석한 것을 설교로 풀어낸 목회자이기도 했다. 그가 요한 신학에 대해서 쓴 박사 학위 논문 이후 학술 논문을 쓰지 않았고, 전적으로 학술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를 전문 성서학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목회를 하면서 성경 각 책에 대한 주석서를 썼다는 면에서 그는 목회적 주석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 신약학자들이 신약 각 책의 주석 문제를 다룰 때 이상근의 주석서과 학술적 대화를 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¹⁾ 일반 목회자들은 설교할 때 그의 주석을 지금도 애용하고 있다.²⁾ 그래서 사실 목회자에 대한 영향력에

* 평택대학교 신학과 교수, 신약학

- 1) 김성규, “정류 이상근과 마가복음,” 『제 3회 정류 이상근 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대구: 대구제일교회, 2016), 12-26. 김성규는 이상근의 마가복음 주석이 전문 학술 주석서가 아닌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이상근은 학술 서적에 부합하는 각주 등을 달지 않았다. 둘째, 이상근은 주석서 외에 학술 논문을 참고 자료로 제시하지 않았다. 셋째, 이상근은 본문 비평적 문제를 다루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자신의 학술적 평가를 하지 않았다.
- 2) 문병구, “정류 이상근 박사의 고린도전서 주해에 나타난 신학 사상,” 『성경과신학』 80 (2016), 80; 유창형, “베드로전서 3:18-20, 4:6에 관한 이상근과 칼빈의 견해 비교

있어서 이상근의 주석은 그 어떤 전문 신약학자가 쓴 주석서의 영향력보다 크다. 목회자에게 그의 영향력이 큰 것은 성서 전 권에 대한 주석을 해서, 하나의 일관된 사상으로 성서 전체를 볼 수 있게 했다는 점과 그 자신이 목회자였기에 그의 주석서가 목회자가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집필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목회주석학자로서의 이상근의 사상은 그 영향력이나 내용 면에서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 간 이상근 목사의 신약과 신학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³⁾ 학술 세미나의 일환으로 2016년 11월에는 그가 쓴 주요 주석서에 나타난 교회론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⁴⁾ 본고는 본래 그 세미나의 발제를 위해 제출되었던 것으로, 그의 요한복음 주석서에 나타난 교회론을 연구한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상근의 요한복음 주석에 나타난 교회 이해를 찾아내어 그 신학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한 가지 난점은 요한복음을 주석하면서 이상근이 교회론적 주제를 별도로 체계적으로 다룬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삼위일체론, 성령론, 성육신론 등은 별도로 보론의 형식으로 다루었지만 교회론에 대해서는 따로 떼어서 체계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회론 주제 본문을 다루면서 그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의 교회론적 사상을 뽑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연구,” 「한국개혁신학」 36 (2012), 96.

- 3) 이상근 목사 사후 최근 10년 어간에 그의 신학에 대한 학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2012년에 발간된 한국개혁신학 36호는 이상근 신학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권호덕, “갈빈의 시각으로 본 정류 이상근 목사,” 「한국개혁신학」 36 (2012), 16-65; 배재욱, “정류(靜流) 이상근 박사의 신학단초와 마태복음 주해,” 「한국개혁신학」 36 (2012), 178-206; 소기천, “이상근 목사의 개혁 신학과 신앙: 「이상근 강해설교」 1-30권과 「신약주해」 1-12권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36 (2012), 66-95; 유창형, “베드로전서 3:18-20, 4:6에 관한 이상근과 갈빈의 견해 비교 연구,” 96-131. 그 이후 이상근 연구 학술대회를 통하여 여러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문병구, “정류 이상근 박사의 고린도전서 주해에 나타난 신학 사상,” 215-240.
- 4) 『제 3회 정류 이상근 연구 학술대회 자료집』 (대구: 대구제일교회, 2016)을 참조하라.

본 논문의 핵심 자료는 이상근의 요한복음 주석서다.⁵⁾ 그가 쓴 책에는 신약 여타 책 주석서와 설교집과 자서전이 있지만, 그것은 본 연구에 있어서 보조 자료다.⁶⁾ 본 논문에서 우리는 그가 쓴 요한복음 주석서를 통해서 그가 요한복음에 배대되어 있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고찰해 볼 것이다. 그러기 위해 먼저 그의 요한복음 연구의 기본 전제를 정리하여 그가 어떤 방식으로 요한복음을 연구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흔히 교회론 본문으로 인정된 본문에서, 그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헤쳐 볼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현대 요한신학에서 교회론을 다룰 때 흔히 하는 주요 질문을 통해서 그의 교회론 이해가 어떤 입장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이러한 그의 교회론의 신학적 의의를 찾아볼 것이다.

1. 이상근과 요한복음

요한신학은 이상근 신학의 핵심이다. 그의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의 주제가 각각 요한복음의 신론과 기독교론이었고, 그의 첫 주석서가 요한복음이었기에 이것은 그의 핵심 사상에 속한다. 또 그의 요한복음 주석서는 당시로서는 고도의 학문성을 지닌 것이었다. 한국신약학회가 창립된 해인 1961년은 한국 신약학의 태동기인데, 이 때 나온 이 주석서는 원문 비평을 포함하여 여러 면에서 한국 신약학계를 선도하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이 주석서에서 한 신학적 주제를 분석해 내는 것은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5) 이상근, 『요한복음』 (대구: 성동사, 1961).

6) 이상근, 『신약성서 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idem, 『등대가 있는 외딴 섬』 (서울: 두란노, 2002); idem, “성경해석,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2: 목회는 바른 성경해석에서 살아난다,” 『목회와신학』 81 (1996), 122; idem, “요한복음-절기 끝날의 외침: 요 7:37-44,” 『그말씀』 (1994), 302-306.

1.1. 특징과 중요성

이상근에게 있어 요한복음은 “성경의 먼류관”이다.⁷⁾ 그 이유는 요한복음은 성서의 핵심 진리를 쉬운 말로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요한복음에 대한 전통적인 별칭인 독수리 복음서, 영적 복음서라는 말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통행되는 제4복음서라는 별칭을 쓰기도 한다. 그가 요한복음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독특하게 쓴 용어는 “동적(動的) 복음서”다. 그 뜻은 요한복음은 신학을 어떤 명제 혹은 명사 형태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예수에 대한 신앙을 직접 표출하는 것을 보여주는 동사적 신학으로 표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나 지식이라는 명사보다는 ‘알다’와 ‘믿다’라는 동사가 주로 쓰이는 것이다.

1.2. 개론적 문제

먼저, 이상근은 요한복음 저자 문제를 자세히 다루면서 저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주장한다. 요한복음 표준 주석서의 하나로 1966년에서 1970년에 걸쳐 나온 주석서에서 브라운(R. E. Brown)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했던 것을 볼 때 이것이 당시에 이러한 입장은 단순한 보수적인 학자들의 견해만은 아니었다. 이상근은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입장을 갖게 된 것이다.

요한복음이 쓰인 경위에 대해서도 그는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을 보충하기 위해 쓰였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취한다. 그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요한복음서는 “공관복음서와 대립되거나(to contradict) 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충(to supplement)하려는 것이다.”⁸⁾ 하지만 당시의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 전승과 독립된 복음서라는 것이었다. 이미 1938

7) 이상근, 『요한복음』, 1.

8) Ibid, 24.

년에 가드너-스미스(P. Gardner-Smith)는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서와는 독립적인 전승이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논증했고, 그 이후 이 견해는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다.⁹⁾ 하지만 지금도 요한복음이 공관복음서를 보충하기 위해 썼다는 주장도 남아 있는 것을 볼 때, 이상근의 견해도 요한복음 해석의 한 축을 형성해온 것이다.

요한복음이 쓰인 목적도 요한복음 저자가 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20:3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에 있다고 한다. 요한복음이 쓰인 정황은 여러 이단 파(가현설, 예비온파, 세례 요한 추종자들)를 물리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때는 아직 마틴(J. Louis Martyn)이 요한복음을 예수 이야기와 동시에 요한 공동체의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쓰인 외부 정황을 이렇게 말한 것은 일반적인 것이었다.¹⁰⁾

1.3. 교리적 주석

이상근의 요한복음 주석서는 그 자신의 요한신학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성 있는 견해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던 서구의 요한신학을 충실하게 소개하는데 있었다.

이 주해서의 주 목적은 정통주의 입장에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형성되던 고전 시대 및 그것이 화려하게 꽃피고 열매 맺던 서구의 선진 교회와 극동의 후진 교회인 우리들 사이를 다리 놓음에 있다. 그리하여, 우리 신앙의 조상들의 순수한 복음적 유산 위에 우리 교회의 기틀을 잡고자 함에 있다¹¹⁾.

9) P. Gardner-Smith, *Saint John and Synoptic Gospels* (Cambridge: CUP, 1938).

10) J. Louis Martyn, "Glimpses into the History of Johannine Community," *The Gospel of John in Christian History: Essays for Interpreters* (N. Y.: Paulist Press, 1978), 90-121.

이 주석서에는 서구의 전통적인 요한신학자들의 주석서를 많이 사용한다. 특히 버나드(J. H. Bernard), 플루머(Plummer), 웨스트코트(B. F. Westcott) 등의 견해를 상당한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들은 이상근이 말한 대로 보수 계열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학자들이다. 반면, 그는 당시 보다 진보적인 계열의 요한복음 주석기들이었던 바레트(C. K. Barrett), 다드(C. H. Dodd), 볼트만(R. Bultmann) 등과는 학문적인 대화를 거의하지 않고 있다. 또 이상근은 요한신학에 대한 저술보다도 주로 요한신학 주석서들과의 대화를 했다. 그가 서두에 소개한 참고도서는 모두 주석서뿐이다. 요한신학 전문 도서들이나 학술지, 전문 사전 등에 게재된 글들과의 대화는 미미했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말한 대로 요한복음 본문에 대한 서구의 보수적 학문을 소개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그 최종 결과물인 주석서와 대화하는 것이 가장 편리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상근의 요한복음 주석서의 특징은, 공관복음과 비교되는 요한복음의 특징은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면서도, 개별 신학자로서의 요한의 면모는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그는 신학적 주제를 설명하면서 흔히 바울 서신이나 다른 신약의 책들과 요한복음의 본문을 연결시키는데, 양자 사이의 신학적 차이점보다는 연결점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그리고 양자를 교리적으로 하나로 연결시키는 시도를 많이 한다. 그의 주석에는 교리적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요한복음을 “교리적(敎理的) 목적을 가진 책”이라고 한다.¹²⁾

11) 이상근, 『요한복음』, iv.

12) Ibid, 21.

2. 교회론 구절에 대한 이상근의 주석 분석

2.1. 교회의 표상(10:16; 15:1)

요한복음에 교회(*ἐκκλησία*)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교회의 표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문적 논쟁이 있어왔다. 예수가 선택 목자라고 하는 본문(10:1-18)과 예수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본문(15:1-17)이 예수의 본질에 대해서만 말하는 구절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본문이 기독교론을 가르치는 본문이면서 동시에 교회에 대해서도 말하는 본문임을 인정한다.

이상근도 이 두 본문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교회의 표상이라고 본다. 이상근은 “이 우리에게 들지 않은 다른 양들”(10:16)을 이방인 교회를 가리킨다고 본다.¹³⁾ 또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 지역 교회를, “무리”는 우주적 교회, 공교회를 의미한다고 한다.¹⁴⁾ 그래서 한 무리, 한 목자는 “역사적 지역적 모든 교회를 총 망라한 교회”다.¹⁵⁾ 그에게 있어 이것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바로 그 공교회다. 또 요한복음 15:1을 주석하면서 이상근은 “본문에 나타나는 포도나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비유하고 있고, 구약에 깊이 근거해 있으면서도 새로운 뜻으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내가 참포도나무요’ 하신 것은 일견 그리스도 자신을 설명하는 말같이 보이나,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 되는(엡 1:23) 교회를 설명하는 데 그 주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¹⁶⁾

여기서 이상근은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을 지칭하던 목자의 양과 포도원을 예수가 이제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말하는데 썼다는 의미에서 이 표상들은 모두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가 바로 그

13) Ibid, 193.

14) Ibid, 195.

15) Ibid, 194.

16) Ibid, 270.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표상들에는 요한신학의 특징인 그리스도 중심성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상근은 이러한 특징을 요한신학의 특징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교리적으로 설명하여, 이러한 교회상이 에베소서 등에 나타난 우주적 교회상과 연관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설명은 이상근의 요한복음 주석이 기본적으로 교리적 주석이라는 특징과 무관하지 않다.

2.2. 교회론적 개념인 일치(17:11, 20-23)

요한복음에는 일치(ἕνω)라는 단어가 예수의 제자 공동체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예수의 제자는 목자인 예수의 인도를 받는 한 무리의 양인 제자 공동체다(10:16).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의 대제사장적 고별 기도에서는 일치로써의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예수는 그의 첫 제자들이 서로 일치될 것(11절)과 그들의 전도를 받은 제2 세대 제자들이 그들과 서로 일치가 될 것을 기도한다(20-23절). 이러한 일치가 다른 것이 아닌 교회를 가리킨다는 사실은 헬라어 ‘헨’(ἕνω)의 대응어인 히브리어로 ‘아하드’(אחד)가 예수 당시의 유대인의 한 분파인 쿰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써의 공동체를 나타내는데 쓰였다는 데 있다. 요한은 일치라는 단어로 제자 무리 공동체를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1:1-4에서는 이것을 ‘사귄’(κοινωνία)이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하기도 한다.

이상근도 요한이 말한 일치를 교회를 표현하는 말로 이해했다. 특히 20-23절에 나오는 일치를 이상근은 우주적 교회의 일치로 해석한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그의 일관된 방식이다. 교회를 지역 교회와 우주적 교회로 이해하고,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수의 직접 제자들의 일치를 지역 교회로 보고, 그들과 제 2 세대 제자들 간의 일치를 우주적 교회 일치로 본 것이다.¹⁷⁾ 무엇보다도 이상근은 이러한 교회 일치의 모델과 근원이 하나

님과 예수의 부자간의 일치에 근원한 것이라고 올바르게 보고 있다. 또 그러한 일치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라고 보아 본문의 의미를 간파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 하면 “하나 되는 정도는 성삼위의 일치에 두고, 하나 되는 결과를 주께서 그 안에 계시고 외적으로는 세상을 믿게 한다.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과의 영교에서 완전하고도 아름다운 일치를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와 또 복음전도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¹⁸⁾

2.3. 공동체 용어인 하나님의 자녀(1:12; 11:52)

요한복음은 예수의 제자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도 아들과 아버지이며, 제자와 하나님의 관계도 아들과 아버지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아들됨을 ‘아들’(υἱός)로, 제자들의 아들됨을 ‘자녀’(τέκνα)로 표현하여 이를 구별하고 있다. 어쨌든,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아버지이고(20:17), 또 제자들은 상호 간에 형제다(21:23).

이상근도 요한이 제자 공동체를 가족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이러한 자녀됨의 특징이 바울이 말하는 것과도 다르다는 것도 잘 설명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기에, “본성적 자녀”를 말하는 것이고, 바울이 말하는 아들됨은 양자(롬 8:15; 갈 4:5-6)라는 것이다. 또 이상근은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나오는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무형적인 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종의 우주적 교회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본다.¹⁹⁾ 이상근은 일관되게 교회를 표현하는 말로 지역교회를 지칭하는 것과 우주적 교회를 지칭하는 것을 구별

17) Ibid, 305.

18) Ibid, 305.

19) Ibid, 207.

한다. 이러한 생각은 그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등에서 말하는 지역 교회와 에베소서 등에서 말하는 우주적 교회 개념이 요한복음 내에 들어있다고 보는 것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2.4. 기타 교회 표상과 교회 개념

요한복음에 나오는 교회 표상과 개념에 대해서 최소주의자가 있고 최대주의자가 있다. 위에서 말한 교회 표상과 교회 개념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표상 혹은 개념이다. 즉 이것들은 최소주의자도 다 인정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최대주의자는 이것 이외에 요한복음에는 교회에 대한 여러 상징 혹은 개념이 더 있다고 본다.

2.4.1 기타 교회 표상(2:21; 3:29)

요한복음에서 교회를 표상한다고 흔히 언급되는 것으로는 예수의 몸인 성전(2:21)과 신랑 예수의 신부(3:29)이다.²⁰⁾ 이 두 표상은 모두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표상했던 것들이다. 바울은 교회를 흔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고전 12:27; 롬 12:5; 엡 12:23; 골 1:18), 또 요한계시록 저자는 교회를 신부로 비유한다(19:7; 21:2, 9-10; 22:17). 몇몇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이 교회를 표상한다고 주장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성전”은 예수를 가리키지 교회를 가리키지 않는다. 예수가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가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나 하나님이 거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을 대체한다는 것이며 여기서 핵심은 예수의 부활이지 교회 표상이 아니다.

또 예수가 신랑이라는 표상(3:29)에서도 우선적으로 비교되고 있는 것은

20) 이것에 대해서는 Dongsoo Kim, “The Church in the Gospel of John,”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of Cambridge, 1999, ch. 3 Other Possible Images of Christ and the Church를 보라.

신랑인 예수와 들리리인 세례 요한이지 신랑과 신부가 아니다. 하지만, 세례 받으러 나오는 백성에 대한 메시아적 권한을 가진 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요한복음 3:29을 읽으면, 그 대답은 신랑인 예수가 되고, 거기에는 메시아가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제되어 있다고 볼 때, 여기서 신부가 교회라는 개념을 끄집어 낼 수도 있다. 그래서 비록 핵심적으로는 이 본문이 예수가 신랑이라는 것에 있지만, 그 안에서는 그 백성이 전제되어 있다는 면에서 신부 상(像)은 얼마든지 교회 표상으로 해석가능하다.

2.4.2. 기타 일치 개념(19:23-24; 21:11)

앞에서 본 대로 요한복음 17장에는 일치로서의 교회 개념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구절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다. 요한복음에서 흔히 교회의 일치를 말하는 구절로 언급되는 것들은 찢어지지 않은 예수의 속옷(19:23-24), 찢어지지 않은 그물(21:11) 등이 있다.²¹⁾ 첫째, 로마 군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는데, 그 옷은 하나로 된 것인데, 군사들이 이것을 찢어 나누지 않고 제비뽑아서 한 사람이 취하려는 장면(19:23-24)에 요한 교회론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교회의 일치가 상징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치를 나타내는 주요 단어는 “찢다”(σχίζωμεν)이다. 예수가 한 목자 하에서 한 무리가 형성될 것을 말하고 나서(10:16) 유대인들에게 “분쟁”(σχίσμα)이 일어났는데(10:19) 그것은 일치가 깨진 것과 같은 것인데, 예수의 속옷이 찢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일치를 이룬 것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나오는 호지 않은 예수의 속옷은 교회의 일치를 상징한다고 할 수

2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 Alan Culpepper, “Designs for the Church in the Gospel Accounts of Jesus’ Death,” *NTS* 51 (2005), 376-392; idem, “The Quest for the Church in the Gospel of John,” *Int* 63 (2009), 341-354; idem, “Design for the Church in John 20, 19-23,” Joseph Verheyden et al, eds., *Studies in the Gospel of John and its Christology: FS. Gilbert van Belle* (Leuven: Peeters, 2014), 501-518.

있다.

둘째, 부활 후 나타난 예수의 지시에 의해 153마리나 되는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끌어 올릴 때(είλκυσεν) 찢어지지(έσχιόθη) 않았다는 기사(21:11)도 교회의 일치를 상징할 수 있다. 이미 12:32에서 요한은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έλκύσω)고 말했는데, 여기서 바로 그 동사가 사용되었다. 군사들이 취한 예수의 속옷은 예수가 죽음을 통해 그의 백성을 하나로 만드는 것(11:52)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앞 구절에서 “끌어올리다”와 “찢어지다”라는 동사가 사용된 것을 유의해서 보아야 한다. 앞의 동사는 예수의 제자들을 모으는 것을 상징하고, 뒤의 동사는 하나됨을 상징한다. 초기 교회에서 물고기 잡은 것을 선교와 연관해서 이해했다는 것을 볼 때(눅 5:1-11), 여기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선교를 통해 사람들을 모아 하나가 되는 교회 일치를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4.3. 기타 하나님의 자녀 개념(19:25-27)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숨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행동은 어머니와 애제자(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를 서로에게 맡기는 것이다(19:25-27). 이것은 흔히 예수의 효성으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교회 형성을 은유한 것이라는 해석이 적절할 것이다. 예수가 “다 이루었다”(19:30)라고 말하고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한 마지막 행동이 단순한 효도라고 보는 것은 요한복음 내러티브에 걸려 있는 신학의 무게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예수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효도를 행했다고 보는 것은 요한복음을 피상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여기에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예수는 요한복음에서 이상적인 제자인 애제자와 어머니를 함께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가족 공동체, 즉 피를 통해서 구성된 가족이 아니라(1:12) 믿음으로 형성되는 한 신앙 가족의 형성을 천명한 것이다. 여기서 애제자가 예수를

“자기집”(εἰς τὰ ἴδια)에 모셨는데, 여기서 사용된 언어가 바로 예수가 자신의 땅에 왔지만 자신의 백성이 자신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구절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면에서, 자기 집이 단순한 집이 아니라 믿음의 집, 즉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1: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εἰς τὰ ἴδια ἦλθεν, καὶ οἱ ἴδιοι αὐτὸν οὐ παρέλαβον.

19:27,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καὶ ἀπ’ ἐκείνης τῆς ὥρας **ἔλαβεν** ὁ μαθητὴς αὐτὴν εἰς τὰ ἴδια.

여기서 “자기 땅/백성”과 “자기 집”이 상응하고, “영접하다”와 “모시니라”가 서로 상응한다. 여기서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과,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접한 것이 잘 비교되어 나타난다.

이상근은 위에 제시된 표상과 개념이 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첫째, 새 성전이나 신랑의 신부 개념이 교회를 상징하는 지에 대해서 침묵한다. 둘째, 예수의 속옷(19:23-24), 찢어지지 않은 그물(21:11)을 그는 교회론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셋째, 모친과 애제자를 맡기는 기사도 예수의 효성으로 해석하지 교회론적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이상을 통해서 이 부분에서 이상근은 교회론에 관해서는 최소주의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최소주의자의 경향성이 최대주의자보다는 다수의 견해다. 하지만 최근에는 요한복음의 교회 개념이 가족 개념으로 이루어진 것에 주목하면서 예수의 모친과 애제자 본문을 교회론적으로 해석하는 데에 학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2.5. 목회(21:15-17)와 성례전(6:41-59)

요한복음에 교회론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흔히 제시되는 것에는 요한

복음에는 12제자를 사도로 보는 교직도, 목회에 대한 지침도, 교회의 필수 요소인 성만찬 제정 본문도 나오지 않는 것 등이 있다. 우선 요한복음에 12제자의 명단이 다 나오지 않으며, 12제자라고 하더라도 사도와 같은 특수한 신분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12제자의 존재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요한이 더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특수 신분이 아니라 모든 교인이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예수의 제자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다. 둘째, 요한복음에 목회의 개념이 없다는 것은 요한복음 21장을 요한복음 저자가 아닌 사람이 쓴 것이라는 전제에서 말하는 것이다. 나는 문체와 신학에 있어서 요한복음 21장이 그 이전과 다르지 않으며, 저자가 의도해서 혹은 다 쓰지 못한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 이 부분을 썼다고 본다. 셋째,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에 이은 논쟁 본문에서 예수가 말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53 절)는 것이 예수의 성만찬을 상징한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요한은 성전과 같은 장소나 혹은 세레나 성만찬 같은 예식을 중요시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의미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이 세레나 성만찬을 반대했다기보다는 그 의미에 집중해서 이것을 해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근은 요한복음의 교직이나 성례전 등의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다만 요한복음 6장의 해당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 본문이 예수의 성만찬 제정 사건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었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²²⁾ 요한은 예식으로써의 성만찬보다 그 의미에 더 집중했다는 것을 잘 분석해 내고 있다.

22) 이상근, 『요한복음』, 140.

3. 이상근의 요한 교회론 이해의 특징과 그 신학적 의의

3.1. 이상근의 요한 교회론 이해의 특징

이상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상근이 요한 교회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이상근은 요한복음에 교회론 사상이 있다고 보았다. 르와시(A. Loisy)가 말한 “예수가 선포한 것은 하나님 나라였는데 생겨난 것은 교회였다”²³⁾는 것에 대해 이상근은 분명히 반대 입장에서 있다. 이상근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교회론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는 요한복음에 이방인 구원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교회를 이룰 것이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 가운데 있었다고 보았다. 요한복음에 관련해서도 요한복음에는 어떠한 교회론적 개념이나 사상을 찾아볼 수 없다는 볼트만의 주장에도 이상근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²⁴⁾ 이상근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볼트만과 어떤 학문적 대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요한복음의 교회 표상이나 개념 본문을 다루는 주석에서 위에서 보여준 대로 그는 이것들을 교회와 연관시켜 주석하는 것을 볼 때, 그는 분명히 요한복음에 교회에 대한 사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볼 수 있다.

요한의 교회론에 관해서 칼페퍼가 유의해서 본 어구는 19:23에 나오는 “위에서부터”(ἐκ τῶν ἄνωθεν)다. 물론 이것은 예수의 속옷이 짜인 것에 대한 말이지만, “위”(ἄνωθεν)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이곳과 3:3 두 번 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것이 앞 구절에서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볼 때, 19:23에서도 여기에 중의적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즉 예수의 속옷이 위로부터 통으로 짜인 것은 교회가 설립된 것이 하나님의 설계로 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에는 교회 이해에 관한

23) A. Loisy, *The Gospel and the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1976), 166.

24) R. Bultmann, *The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vol. 2 (N. Y.: Charles Scribner's Sons, 1955), 8, 91.

설계가 있었다고 본다. 칼페퍼(R. Alan Culpepper)가 이해한 요한의 교회 설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i) 요한은 교회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한다.
- (ii) “믿음과 사랑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와 일치를 이루는 것 또한 신앙 공동체가 서로 교제하는데 있어서 기초다.”
- (iii) “요한복음에서 교회에 대한 뿌리 은유는 가족이라는 것에 학자들이 점차 견해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
- (iv) “예수처럼 제자들은 세상으로 파송되었다.”²⁵⁾

둘째, 요한복음 교회론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이상근은 최소주의자다. 그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교회론에 관한 여러 이미지와 개념 중에서 전통적으로 교회를 가르키는 것으로 본 것만 인정한다. 그런 면에서 그는 다수 의견인 최소주의자의 입장에서 있다. 나아가, 이상근은 요한복음의 여러 신학 주제 중에서 교회론이 핵심 주제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요한신학에서 교회론을 일종의 부수 주제(*Randthema*, minor theme)로 보았다. 이상근은 요한복음을 주석하면서 특주를 14개 포함시키는데 그 중에 교회론은 들어 있지 않다. 그는 교회론을 기독교의 틀, 혹은 예수의 삶의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셋째, 이상근은 교리적 틀 안에서 요한 교회론을 해석했다. 이상근은 요한복음의 교회론을 바울의 몸 교회론, 에베소서의 우주적 교회론과 연관시킨다. 이러한 입장의 긍정적인 점은 요한복음에 제시된 교회론은 신약 여타 책에 나오는 교회론과 부합한다고 보아 신약성서의 통일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또 이러한 설명의 약점은 요한복음의 교회론이 여타 신약 책에 나오는 교회론과 특별한 구분되는 특징이 있음은 잘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25) Culpepper, “The Quest for the Church in the Gospel of John,” 353.

3.2. 이상근의 요한 교회론 이해의 의의

3.2.1. 유용성: 신약성서 교회 개념의 통일성이 드러남

이상근이 요한 교회론을 연구할 때 취한 방법은 요한신학에 국한해서 교회론을 해석하기보다는 신약성서 전체에서, 그것도 기독교 교리와 연관하여 통전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요한 교회론의 개별성보다는 신약 교회론의 통일성 하에서 요한 교회론을 다루었다. 그는 공관복음과 비교되는 요한복음의 특징은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면서도, 개별 신학자로서의 요한의 면모는 잘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신학적 주제를 설명하면서 흔히 바울서신이나 다른 신약의 책들과 요한복음의 본문을 연결시키는데, 양자 사이의 신학적 차이점보다는 연결점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리고 양자를 교리적으로 하나로 연결시키는 시도를 한다. 그의 주석에는 교리적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요한복음을 “교리적(敎理的) 목적을 가진 책”이라고 한다.²⁶⁾

이러한 신학적 방법은 성경을 하나의 통일된 책으로 인식하는 일반 신자들에게 목회적으로 어느 정도 유용할 것이다. 또 이상근이 요한복음 주석 집필하던 당시의 신약성서 신학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한 이해가 적었던 일반 목회자들에게도 이러한 접근은 이상근의 주석의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성경을 통일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했고, 또 기독교 정통 교회가 믿는 교리와 요한의 교회론이 부합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그의 이해가 그의 주석서를 읽은 많은 이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목회에 있어 건전한 신학적 기초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상근의 요한복음 주석서의 역할을 지대했다. 그의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었다.

이상근의 성서 주석 방법은 성서에 대한 교리적 혹은 통전적 해석이다.²⁷⁾

26) 이상근, 『요한복음』, 21.

27) ‘통적적’이라는 말을 나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하나의 교리 체계를 갖춘 책으로 이해하는’이라는 의미로 쓴 것이다. 신약성서 주석에 관련해서 보면 이것은 성서

그는 성서가 주제에 있어 상호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통일된 책이라고 보고, 특정성서의 특정 구절에 나타난 의미를 해석한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구절을 요한의 신학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신약성서에 나타난 전체 교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본문을 주석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상근의 해석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칼빈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로 이러한 해석을 했다.²⁸⁾ 하지만, 현대 신약성서 학자는 대개 이러한 해석에 불편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이러한 해석은 성서 각 저자의 개별성을 잘 드러내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3.2.2. 제한성: 요한 교회론의 독특성이 드러나지 않음

성서를 해석하는 어떤 방법론이든 각 방법론은 성서를 해석하는 하는 유일한 방식일 수 없으며 그야 말로 성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기에 각 방법론에는 장점과 약점이 있다. 요한 교회론을 주로 신약성서의 신학적 통일성과 일치된 기독교 교리의 입장에서 보려는 이상근의 방법론은 신약성서 안에서 요한 교회론의 독특성을 찾아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상근의 요한 교회론 이해를 보다 발전시키려면 그의 교리적 성서 주석 혹은 통전적 방법론을 뛰어 넘어야 한다. 요한복음의 교회론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역사적 방법을 사용하면 요한 교회론에 대한 독특성을 보다 잘 볼

개별 저자의 개별성보다는 신약성서 전체가 교리적으로 서로 통일성을 이룬다는 전제 하에 신약성서 전체를 하나의 책으로 읽는 것을 말한다.

- 28) 칼빈의 성서해석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천사무엘, “칼빈의 구약성서 주석에 나타난 해석의 원리와 방법,” 『대학과선교』 12 (2007), 215-246. 천사무엘은 칼빈도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통일체로 보고 신약의 교리의 눈으로 구약 본문을 이해하려는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권호덕은 성서를 통전적으로 본다는 면에서 이상근이 충실한 칼빈주의자였다고 보았다. 권호덕, “칼빈의 시각으로 본 정류 이상근 목사,” 16-65. 이러한 교리적 해석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칼빈의 성서해석의 원리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손석태, “칼빈의 성서해석,” 『개신논집』 9 (2009), 1-39.

수 있다. 요한 교회론에 대해서 역사적 방법으로 요한 교회론의 독특성을 가장 잘 설파한 이는 20세기 요한신학의 대부인 브라운일 것이다. 그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 이전의 방법론으로는 잘 알아채지 못한 요한의 교회론의 특징을 잘 밝혀냈다.²⁹⁾ 나도 이러한 방법론을 사용해서 요한 교회론의 독특성에 대해서 말한 바 있다.³⁰⁾

이상근의 교리적 방법만으로는 성서 개별 저자의 독특한 신학을 찾아내기 어렵다. 그는 요한복음 교회론에서 요한의 교회론의 특징에 대해서 아무 것도 말하지 않았다. 최근 칼페퍼는 요한 교회론 연구에 있어서 학자들이 어떻게 방법론을 발전시켜 나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첫째, 1950-60년대에는 신학적인 연구 방법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때의 주요 이슈는 요한복음에 교회론이 존재하는가의 유무였으며, 존재한다면 그 중요성의 유무였다. 둘째, 1970-80년대에는 역사적인 연구 방법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 때 요한 교회론 연구는 요한 공동체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되었다. 셋째, 1990-2000년대에는 문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요한 교회론을 연구하는 것이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대표자는 칼페퍼인데 그는 요한복음 내러티브상에서 교회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보여주려고 했다. 그는 성서와 성서에 나타난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³¹⁾ 칼페퍼의 분류로 보면 이상근의 교리적 방법론은 “신학적

29) 이런 방법으로 요한 교회론의 특징을 밝힌 것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요한의 교회론은 여성과 남성, 12제자와 일반 제자를 계급으로 나누지 않고 모두를 제자로 보는 평등의 비전이 그 특징이다. 둘째, 요한 교회론은 당시 공교회주의(Early Catholicism)으로 가는 방향을 역으로 가는, 일종의 교회 갱신적인 것이었다. R. E. Brown, *The Churches the Apostles Left Behind* (N. Y.: Paulist Press, 1984).

30) 이에 관한 김동수의 글로는 다음을 보라. 김동수, 『요한복음의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idem, “이것이 신약이 말하는 교회다,” 『신학지평』 24 (2011), 129-143; idem, “요한복음에 나타난 교회와 교직 이해,” 『신약논단』 7 (2000), 245-262; idem, “신약성서는 교황제를 지지하는가?: 마태복음 16:18-19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2 (2015), 565-594; idem, “신약의 교회 지도력 모델,” 『교회성장가이드』 95 (2001), 32-37.

31) Culpepper, “The Quest for the Church in the Gospel of John,” 341-354.

방법론”인데, 주로 비평 이전 시대에 사용했던 방법으로, 성서 본문을 일관성 있는 교리 체계 하에서 또 성서 신학을 하나의 교리로 묶으려 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법은 성서 개별 저자와 성서 개별 본문의 독특성을 잘 드러낼 수 없는 난점이 있다.

나가는 말

본 논문은 이상근의 요한복음 주석에 나타난 그의 교회 이해를 살펴본 것이다. 그는 교리적으로 요한복음의 교회론을 설명했다. 이러한 이해는 성경의 통일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했고, 또 기독교 전통 교회가 믿는 교리와 요한의 교회론이 부합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그의 이해가 그의 주석서를 읽은 많은 이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목회에 있어 건전한 신학적 기초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상근의 요한복음 주석서의 역할을 지대했다. 그의 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었다.

위와 같은 교리적 해석의 순 기능은 목회자가 성서를 주석할 때 개별 본문을 다른 본문과 연결시켜 통일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의 역 기능은 성서를 그 때 거기에서, 그 상황에서 일어난 개별 저자의 특수 신학이라는 것을 보기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상근이 이 문제를 양자선택으로 보려한 것 같지는 않다. 그도 신약학자로서 신약성서의 주제에 대한 해석에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통일성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어 다양한 성서 저자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게 했다. 이것이 바로 성서 주제의 통일성을 전제로 한 일반 목회자에게 이상근의 주석이 지금도 애호되고 있는 이유이고, 동시에 신약학자들이 그의 주석을 학술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요어>

교리적, 이상근, 성서 주석, 요한, 교회론

<Key Words>

Doctrinal, Sang Kun Lee, Exegesis, John, Church

* 접수일 2017년 3월 8일, 수정일 2017년 3월 29일, 게재 확정일 2017년 3월 30일

참고문헌

- 권호덕, “칼빈의 시각으로 본 정류 이상근 목사,” 『한국개혁신학』 36 (2012), 16-65.
- 김동수, “신약성서는 교황제를 지지하는가?: 마태복음 16:18-19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2 (2015), 565-594.
- 김동수, “이것이 신약이 말하는 교회다,” 『신학지평』 24 (2011), 129-143.
- 김동수, 『요한복음의 교회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김동수, “신약의 교회 지도력 모델,” 『교회성장가이드』 95 (2001), 32-37.
- 김동수, “요한복음에 나타난 교회와 교직 이해,” 『신약논단』 7 (2000), 245-262.
- 문병구, “정류 이상근 박사의 고린도전서 주해에 나타난 신학 사상,” 『성경과 신학』 80 (2016), 215-240.
- 민영진, “이상근 주해의 특성과 과제,” 『목회와 신학』 122 (1999), 160-163.
- 배재욱, “요한복음의 그리스도론과 대승불교의 불타론: 정류(靜流) 이상근의 부다(Buddha) 이해를 중심으로,” 『신약논단』 23 (2016), 159-186.
- 배재욱, “정류(靜流) 이상근 박사의 신학단초와 마태복음 주해,” 『한국개혁신학』 36 (2012), 178-206.
- 배재욱, “정류(靜流) 이상근 박사의 신학사상,” 『장신논단』 36 (2009), 71-101.
- 소기천, “이상근 목사의 개혁 신학과 신앙: 『이상근 강해설교』 1-30권과 『신약주해』 1-12권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36 (2012), 66-95.
- 손석태, “칼빈의 성서해석,” 『개신논집』 9 (2009), 1-39.
- 유창형, “베드로전서 3:18-20, 4:6에 관한 이상근과 칼빈의 견해 비교 연구,” 『한국개혁신학』 36 (2012), 96-131.
- 정영환, “정류 이상근 목사의 목양의 길,” 『목회와 신학』 122 (1999), 170-173.
- 주승중, “과학적인 준비를 예술적으로 선포한 이상근 목사의 설교세계,” 『장신논단』 22 (2004), 265-298.

- 주승중, “이상근 주해와 설교,” 『목회와 신학』 122 (1999), 164-169.
- 이상근, 『신약성서 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 이상근, 『등대가 있는 외딴 섬』, 서울: 두란노, 2002.
- 이상근 “성경해석,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2: 목회는 바른 성경해석에서 살아난다,” 『목회와 신학』 81 (1996), 122.
- 이상근, “요한복음-절기 끝날의 외침: 요 7:37-44,” 『그말씀』 (1994년 6월호), 302-306.
- 이상근, 『요한복음』, 대구: 성등사, 1961.
- 천사무엘, “칼빈의 구약성서 주석에 나타난 해석의 원리와 방법,” 『대학과 선교』 12 (2007), 215-246.
- Brown, R. E., *The Churches the Apostles Left Behind*, N. Y.: Paulist Press, 1984.
- _____,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2 vols., N. Y.: Doubleday, 1966-1969.
- Bultmann, R., *The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vol. 2, N. Y.: Charles Scribner's Sons, 1955.
- Bauckham, Richard, “The 153 Fish and the Unity of the Fourth Gospel,” *Neot* 36 (2002), 77-88.
- Culpepper, R. Alan., “Design for the Church in John 20, 19-23,” Joseph Verheyden et al, eds., *Studies in the Gospel of John and its Christology: FS. Gilbert van Belle*, Leuven: Peeters, 2014, 501-518.
- _____, “The Quest for the Church in the Gospel of John,” *Int* 63 (2009), 341-354.
- _____, “Design for the Church in the Imagery of John 21:1-14,” *Imagery in the Gospel of John: Terms, Forms, Themes, and Theology of Johannine Figurative Language*, J. Frey et al, eds., Tübingen: J. C. B. Mohr, 2006, 369-402.
- _____, “Designs for the Church in the Gospel Accounts of Jesus' Death,” *NTS* 51 (2005), 376-392.
- Enns, Peter, 『성육신의 관점에서 본 성경 영감설』, 서울: CLC, 2006.
- Gardner-Smith, P, *Saint John and Synoptic Gospels*, Cambridge: CUP, 1938.
- Loisy, A., *The Gospel and the Church*, Philadelphia: Fortress, 1976.
- Martyn, J. Louis, “Glimpses into the History of Johannine Community,” *The*

Gospel of John in Christian History: Essays for Interpreters, N. Y.: Paulist Press, 1978, 90-121.

Schneiders, Sandra M., “The Raising of the New Temple: John 20.19-23 and Johannine Ecclesiology,” *NTS* 52 (2006), 337-355.

<초록>

요한복음 주석서에 나타난 이상근의 교회 이해

김동수

(평택대학교)

이상근은 신구약 전 권 주석서를 썼고,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그의 주석서의 영향력은 지대했다. 그의 사후 최근 10년간 그의 신학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그의 인물됨과 사상의 면모가 잘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는 그의 각 주석서에 나타난 특정 신학 사상을 연구하는 심포지엄이 있었다. 그러한 심포지엄에서 교회론을 다루었는데, 본 논문은 요한복음 주석서에 나타난 그의 교회론을 연구한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의 목적은 이상근의 요한복음 주석에 나타난 교회 이해를 찾아내어 그 신학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상근이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취한 주석 방법의 특징이 교리적 성서 주석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는 요한의 교회론을 요한복음 저자의 신학에서가 아니라 신약 전체의 교회론, 나아가 조직신학적 교회론에서 해석한다. 그는 성서 전체에서, 교리적으로 요한 교회론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 방법의 유용성은 성서를 한 권의 책으로 보면서 그 안에 내제된 교리의 통일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법의 제한성은 역사의 한 시점에서 개별 저자가 특정한 목적으로 제시한 신학을 밝혀내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상근 성서주석의 유용성과 동시에 한계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이다.

<Abstract>

Sang Kun Lee's Understanding of the Church in His Commentary on the Gospel of John

Prof. Dongsoo Kim
(Pyeongtaek University)

Sang Kun Lee wrote commentaries on the entire Scriptures through his whole life, and they have influenced greatly on the Korean pastors during last 50 years. After his death, a number of articles and essays regarding his life and theology are published, and hot discussions on the significance of his thoughts are ma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ang Kun Lee's understanding of the church reflected in his commentary on the Gospel of John.

This study will make clear that his way in exegesis is a kind of holistic or doctrinal method. Further, he is a minimalist in his understanding of Johannine ecclesiology. What I mean by holistic method is that he regards the New Testament as the book which has unity in its doctrines. He understands Johannine ecclesiology as a part of New Testament ecclesiology, which he believes has unity rather than diversity. I will try to prove this by analyzing the ecclesiological texts in his commentary on the Gospel of John. Then, I will discuss on both the usefulness and limitation both of his understanding of the church and of this method. This is useful in that one can understand the whole Scripture as a coherent book with regard to the doctrines. However, it has limitation in that it prevents interpreters from seeing the theological distinctiveness of each author.